

‘투기 수단’ 전략 나주 혁신도시 ‘특공’...절반은 매도·임대

〈특별공급 아파트〉

농어촌공사·aT·농기평 174명 특별공급...50.6% 매도·임대
농어촌공사 67.3% 최다...44명은 매도 시세차익 43억원 달해
농기평 6명 이전 전 특공 받고 퇴직...의무 거주 내규 개정해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농업 기관 임직원들의 절반 이상(50.6%)이 매도·임대를 하며 사적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01명 가운데 32명만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했는데, 매도로 인한 시세차익이 총 43억원에 달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식품기술기획

평가원(농기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이달까지 이들 3개 기관에서 공공택지 우선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들은 174명이었지만 절반 이상(50.6%)인 88명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임대해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한 임직원은 41.4%(72명)에 불과했다. 기관이 이전하기 전에 퇴직(3.4%·6명)하거나, 기관이 이전한 뒤 퇴직(4.6%·8명)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 나주로 옮기기 전에 특별공급 혜택을 받고 퇴직한 6명은 모두 농

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소속이었다. 농기평은 지난 2019년 1월28일 나주로 이전했다. 특별공급 인원이 101명으로 가장 많은 한국농어촌공사는 67.3%에 달하는 68명이 아파트를 매도·임대했다. 아파트를 매도한 인원은 44명이었는데, 이들이 아파트를 되팔면서 거둔 시세차익은 총 43억원에 달했다. 농어촌공사 직원 가운데 최대 3억원의 이익을 본 뒤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파트를 임대한 농어촌공사 임직원은 2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명은 나주 본사에 근무하면서도 세를 줬다. 16명의 임직원은 총 41억원 상당 전세를 받았고, 7명은 월평균 80만원 상당 월세를 받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특별공급을 받은 42명의 38.1%(16명)가 아파트를 매도(8명)하거나 임대(8명)했다. 농기평은 31명 중 17명만 특별공급 아파트에서 살고, 3명은 아파트를 팔고 1명은

세웠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하는 공공기관 또는 종사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공공택지의 우선 특별공급을 받아놓고 아파트를 매도·임대하며 제도의 취지를 약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직원 691명 가운데 1인 가구를 포함한 가족 동반 인원은 446명으로, 동반 이주율은 64.5%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66.7%)보다 2.2%포인트 떨어진 수치

며, 나주 혁신도시 평균 동반 이주율 70.4%를 크게 밑돈다. 부산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청약이 선정됐을 때가 아닌 입주일 기준일부터 6년 이내에 최소 3년 이상 청약자인 부산에 의무근무하도록 기준을 지난해 정비했다. 서삼석 의원은 “특별공급 애초 취지는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일반 청약 전 우선 선정될 수 있는 큰 혜택”이라며 “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보는 사례가 파악되는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무 거주 기준을 예로 들며 “현재 ‘주택법’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8년으로 규정한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법과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업인 행복버스’ 출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뒷줄 맨 오른쪽)는 합평 월야농협과 17일 월야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고령 농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찍어주고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를 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행사를 열었다. <전남농협 제공>

효성, 기후변화 적극 대응... ‘TCFD’ 지지선언

효성티앤씨 등 계열사 모두 참여
글로벌 인벤토리 구축 등 계획

효성은 최근 ESG 경영 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지지를 선언했다고 17일 밝혔다. TCFD 지지선언에는 지주사인 ㈜효성을 포함해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주요 4개 계열사가 모두 참여했다. TCFD는 2015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다. 현재 전 세계 3400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효성은 지난 2020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 ▲기후변화 대응전략 ▲기후 리스크 관리 ▲온실가스 배출 지표 및 목표치 등을 공개해왔다. 이번 지지선언은 TCFD 이행 과정에서 향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기후변화 대응 및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특히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9월 첫번째 TCFD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인벤토리 구축 및 목표 설정계획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지지선언은 글로벌 주요 고객사가 요구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및 ESG 경영에 대한 효성의 명확한 비전과 경영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효성은 전했다. 조원준 효성 회장은 “효성은 섬유·중공업·화학·첨단소재 등 주력 사업 부문에서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TCFD 지지선언을 계기로 ESG경영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리드해 나가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분야 노력을 인정받아 효성과 효성첨단소재는 2020년 각각 A-와 A등급을 받으며, CDP Climate Change Korea Award에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및 탄소경영 아너스클럽을 수상했다. 효성티앤씨도 2021년 A-등급을 받아 탄소경영 특별상을 수상했다. A등급은 기후변화 대응 활동,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정보 공개가 우수한 소수 기업에게 주어지는 최고 등급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데이터센터 화재’ 카카오그룹 시총 2조원 증발

카카오게임즈 제외 52주 신저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재난 대응 부실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와 계열사들 주가가 17일 일제히 급락하며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2조원 넘게 증발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5.93% 하락한 4만8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중목인 카카오게임즈(-2.22%), 유가증

권시장에 상장한 카카오뱅크(-5.14%), 카카오페이(-4.16%)도 모두 하락 마감했다.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한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은 이날 모두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인 이달 14일 총 39조1660억원이었던 카카오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 2조561억원 감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16포인트

(0.32%) 오른 2219.71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3.76포인트(0.55%) 오른 682.00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19.71 (+7.16)
▲ 코스닥	682.00 (+3.76)
▲ 금리(국고채 3년)	4.239 (+0.032)
▲ 환율(USD)	1435.30 (+6.80)

코픽스 3% 돌파...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

전달보다 0.44%p ↑
최근 한 달 사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44%포인트 뛰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8월(2.96%)보다 0.44%포인트 높은

3.40%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3.40%)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폭(0.44%포인트)은 7월(0.52%포인트) 이후 2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시중 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